

국립식량과학원·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농촌 일손 돕기로 상생 가치 실천

- 지난 4월 상생 협약(MOU) 체결 후 실질적 농가 지원
- 가루쌀 모판 운반 및 논콩 손 파종 지원... 청년농업인 현장 목소리도 들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6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바람난농부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30여 명은 가루쌀 모판 5,000장을 육묘장으로 옮기고, 기계 파종이 어려운 논콩 재배지 약 3,000㎡에 손으로 콩을 심으며 파종 작업을 지원했다.

바람난농부영농조합법인 유지혜 대표는 우리 밀을 재배하며 우리 밀 빵을 판매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식량 산업 분야 신제품·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식량작물 청년농업인 포럼’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 직원들은 작업을 마친 뒤 유 대표의 가공 체험장을 방문해 직접 재배한 우리 밀로 만든 빵을 시식하고, 청년농업인으로서 느끼는 현장의 개선점 등을 들었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4월 지역 청년농업인의 농산물 판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쌀, 3곳에 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해당 휴게소의 식자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이번 일손 돕기 활동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고 상생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라며,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식량원·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농촌 일손돕기 협업 계획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지도사	황택상 (063-238-5200) 김정현 (063-238-5202)
				



□ 개 요

- 일 시: '26. 6. 16.(화), 09:30~16:40
- 장 소: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지원인원: 30명(식량원 14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16명)
- 작업내용: 가루쌀·신동진 모판 육묘장 옮기기(5,000장), 콩 파종(3,000㎡)
 * 기계 파종이 불가피한 필지에 대해 콩 직접파종(손파종) 지원

□ 세부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10:10	40	• 이 동(식량원 → 김제)	식량원 유니버스
10:10~11:50	100	• (오전) 일손돕기 * 모판 육묘장 옮기기	
11:50~13:00	70	• 이 동 및 식사(농장 → 식당)	
13:00~15:00	120	• (오후) 일손돕기 * 콩 파종	3,000㎡
15:00~16:00	60	• 우리밀 빵 시식 및 유지혜 대표설명	
16:00~16:40	40	• 이 동(김제 → 식량원)	